성장 못 따라가는 채용… 고용창출력 8년 만에 '최저'

올 2분기 고용탄성치 0.132
고용효과 낮은 산업 중심 성장
수출형 → 내수 육성 사업으로
산업간 균형 발전 도모해야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신중년 인생3모작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피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우리 경제가 점점 일자리 창출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산업생산이 늘어도 일자리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등 한국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8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16일 한국은행 실질 국내총생산(GDP) 자료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이하 동일)을 실질 GDP 증가율로 나눈 고용 탄성치는 올해 2분기에 0.132였다.

고용 탄성치는 산업성장이 고용을 얼마나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올해 2분기 수치는 지난 2010년 1분기 0.074를 기록한 후 8년 3개월(33분기)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보통 고용 탄성치 수치가 높을수록 산업성장에 비해 취업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낮을수록 산업성장에 비해 취업자 수가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 탄성치는 작년 4분기에 0.356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 0.252로 하락했다가 2분기에 한층 더 낮아졌다.

최근 연간 고용 탄성치 흐름을 보면 2014년 0.699, 2015년 0.395, 2016년 0.309, 2017년 0.400이었다.

올해 상반기 평균은 0.192로 2010년 상반기 0.161을 기록한 후 8년 만에 최저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고용 탄성치 역시 8년 만에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탄성치가 기록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은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원인으로 우선 지목된다.

큰 반도체나 석유화학의 경우 GDP 성장 기여도는 높지만 고용 창출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반면 건설업, 자동차 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전통적으로 고용 기여도가 높은 산업은 부진하다.

2분기 성장률(2.8%) 기여도를 보면 건설업은 -0.1%p, 운송장비제조업은 -0.2%p, 음식점 및 숙박업은 0.0%p였다. 2분기에 제조업 취업자는 9만1000명 줄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건설업은 경우 2분기 취업자가 1만6000명 늘었지만 작년에 연평균 11만9000명 증가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가 고용 창출을 가로막는다는 분석도 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상당히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해 유연성을 높여주면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가 사회보장 제도로 뒷받침하면서 (고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 없는 성장 기조를 벗어나려면 수출 주도형 산업에서 벗어나 내수를 육성하는 등 산업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제조업은 거의 한계에 와 있으니 서비스 산업이나 내수 산업을 키워야 고용 탄성치가 높아진다"며 "서비스업 관련 규제 개혁을 추진하거나 산업 혁신 법안 등을 통과시켜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이마트 트레이더스 송림점 /메트로DB

대형마트 23일 '의무휴업' 추석장보기 대란 시작됐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407개 점포 중 277개 문 닫아
명절 전 주말부터 인산인해

과일상자와 선물세트상자로 가득 찬 카트를 끄는 고객, 굴비세트를 앞에 두고 한참을 가격 비교하는 고객, 그리고 수많은 고객 사이를 가로지르며 카트를 정리하는 알바생…. 추석을 일주일 앞 둔 주말인 15~16일, 대형마트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추석이 오는 24일 월요일인데 그 전날(23일) 마트 대부분이 둘째주 일요일이라 휴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장보러 나왔죠."

◆추석 전날 대형마트 277개 휴업

대목인 올해 추석 전날 전국 대형마트 277곳이 문을 닫는다.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월 2회 의무휴업일이 대부분 둘째, 넷째주인 가운데 돌아오는 일요일인 23일이 의무휴업일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명절을 맞아 장을 보고 선물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 대부분이 전주인 15~16일 전국 대형마트로 몰렸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빅3가 운영하는 전국 407개 점포 중 추석 전날인 23일 휴업하는 점포는 전체의 68.1%인 27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43개 이마트 점포 중 94곳이 문을 열지 않으며, 홈플러스는 141개 중 99곳, 롯데마트는 123개 중 85곳이 문을 닫는다. 기초자치단체와 전통시장 상인회 등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의무휴업일을 다른 요일로 변경할 수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5개 광역시의 경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놨다.

추석 전날이 의무휴업일과 겹치자 불만도 하나둘씩 터져나오고 있다. 지방으로 명절을 세러 내려가는 A(33세 여, 직장인)씨는 "선물세트나 과일/정육을 사러 마트에 갈 날이 이번주밖에 없다. 평일에는 퇴근 후 장보기가 여의치않고, 일찍 지방으로 내려가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빠듯하다"고 토로했다.

◆명절 마케팅 앞당겨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명절 마케팅 시간표를 앞당겼다. 이마트는 최대 3일 빠른 D-7일에 제수용품 할인 행사를 시작한다.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 간 차례에 필요한 각종 제수용품부터 제철 신선식품, 주요 생필품 등 총 800여개 품목을 모아 대규모 할인 행사를 펼친다.

올해는 봄철 이상저온 현상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과일과 한우, 참조기 등 주요 제수용품 시세가 10~20% 가량 오름세를 보였다. 이마트는 산지 직거래, 계약농장, 직영 미트센터와 후레쉬센터를 활용해 신선식품 가격 상승을 최소화했다.

대표적으로 한우 국거리와 불고기 1등급을 정상 가격 대비 10% 할인해 100g에 4500원에 선보이며, 호주산 척아이롤도 24% 할인해 100g에 1580원에 판매한다. 특대 사이즈 사과(380g)·배(720g)도 각각 3개를 묶어 1팩으로 구성해 1만3800원(사과), 1만4800원(배)에 판매한다.

이마트 측은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 이후 추석 바로 전날이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인 날은 올해가 처음"이라며 "60%가 넘는 이마트 점포가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